월요광장

자기 희화화, 위장된 부끄러움의 몸짓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부끄러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낀다. 이 부끄러움의 감정은 성찰의 첫걸음이며 더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큰 결핍이며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면의 부끄러움을 왜곡하거나 조야(粗野)하게 위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 또는 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품격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성찰과는 반대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강한 체하거나, 발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꼬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파묻는 어이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뒤틀린 내면의 부끄러움의 결과를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광대 짓이라고 규정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의 가늠하기 어려운 내면의 복잡성과 의식의 다양한 층위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주인공인 표도르의 성격은 종잡기 어렵고 복잡하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과 윤리적 기준, 책임감 중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인물로, 오로지 자기보존의 욕망 덩어리이다. 아내와 아들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비정하며 심지어 폭력적이다. 이런 표도르가 가장 능란하게 하는 일은 자기 희화화이다. 그는 언제라도 필요하면 주저없이 광대 짓을 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큰 아들과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수도원에 모였을 때 역시 표도르는 광대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모두를 괴롭힌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심지어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표도르는 자신이 먼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턱없이 비난하거나, 관심과 동정을 구걸하면서 자신은 부당하게 무시와 피해를 당한 '가련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강변한다. 이런 표도르의 내면을 조시마라는 러시아 정교회 장로는 한눈에 꿰뚫어 본다. 장로는 표도르가 벌이는 온갖 방법의 자기 희화화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자가당착의 실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표도르가 거침없이 고백한다. "바로 그 때문에 어릿광대가 된 겁니다. 부끄러워서 어릿광대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표도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장로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자신에게마저 계속 행하는 거짓은 결국 진실의 의미 자체를 분간할 수 없게 하며 삶의 토대인 자기 존중과 신뢰마저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조시마 장로가 보는 표도르의 자기 희화화의 문제는 내면의 부끄러움을 숨긴 채 진실의 가치에 대해 가해지는 무차별한 공격이다. 표도르는 과장된 행동과 앞과 뒤를 뒤집는 말로써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고, 능청스럽게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마저 속이며 자신의 속임수에 열광한다. 표도르의 이런 광대 짓은 내면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존엄을 포기하고 구차한 자기 연민에 매달린다는 뜻이다. 표도르의 모습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의식과 내면 사이의 분열이 빚어낸 파괴와 부정의 현상이다. 이 파괴적 극단성은 한 여자를 두고 아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데에서 정점을 이루고, 표도르는 처참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파멸한다.

그런데 표도르의 억압되고 뒤틀린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의 것과는 상관없는 것일까? 성찰의 부끄러움 대신 요란한 말장난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는 표도르는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까? 줄줄이 앉아서 머리를 삭발하는 과잉의 정치적 단호함이나, 남의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목청을 높이는 '애국심 넘치는 국민'들을 보면서 결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일이 한순간에 명징해졌다. 스스로 표도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희화화에 취한 그런 표도르와 이제 정말 결별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과중한 지자체 사회 복지 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문 인
광주시 북구청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산업 구조 및 노동 시장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외환 위기에 이은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 사회 복지비 지출은 11%로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 된 정부의 포용적 복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우리 북구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 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북구에는 2019년 현재 18만 6000여 세대, 약 43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아동)은 10만 5000명으로 24.1%에 달하며,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많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4만 2000여 명으로 수혜 대상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북구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비가 67.75%, 재정 자주도는 27.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소득 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 단가 상승, 아동 수당 및 영유아 보육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까지 이어져 복지비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광역시 자치구 대부분은 낮은 재정 자주도, 높은 사회복지비, 낮은 자체 사업비로 재정 3중고에 처해 있다. 특히 광주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낮고 복지비 지출이 과다하여, 생활 SOC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부분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2018년부터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사회 복지비 지수가 과다하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 국비 차등 보조율 개선과 기초연금 구비 부담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에서 보낸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 개선과 보통 교부세 제도, 차등 보조율제 등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 수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재정 자주도가 34%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광주 북구·서구,대구 달서구)에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북구를 포함한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인 7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상향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 전에는 부산 북구에서 열악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복지 특구' 지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이 과다하고,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비 부담률 조정에 대한 제도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역량을 키워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과 복지 국가의 기틀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 고

사랑과 행복을 전파하는 기부

이 동 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낙엽 지고 서리가 내리면서 가을이 익어가는 듯 싶더니 어느덧 차가운 겨울 바람과 함께 12월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지면 독거 노인, 노숙자, 고아 등 헐벗고 굶주리며 의지할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나기가 무척 힘들게 된다. 그래서 거리에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각종 구호 단체나 언론사에서도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마음을 따스하게 한 뉴스가 있었다.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4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김영석(91), 양영애(83세) 부부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간 기부금을 합하면 40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니 이들 노부부의 기부액은 그야말로 거액이다. 이처럼 배우지 못한 설움을 기부로 승화시킨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 배워서 성공한 이들의 교육 기부는 인색한 듯하여 아쉽기만 하다.

6·25 전쟁 후 무일푼으로 출발한 노부부는 청량리 무허가 판자촌에 살며 리어카로 과일을 떼다 팔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고 품질 좋은 과일을 파는 가게'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남들보다 서너 시간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고 한다.

차비를 아끼려고 늘 걸어 다녔으며 새벽에 과일을 떼다 놓은 후에는 밥값을 아끼려고 근처 해장국 집에서 일을 도우며 식사를 해결했다. 근면, 검소, 정직, 신뢰의 기본이 되는 미덕을 평생 실천한 결과 큰 재산을 일군 것이다.

김 씨 부부는 삶의 황혼을 기부로 장식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부인 양 씨는 "어린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자신과 별다른 연고도 없는 대학에 기부한 것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병열(83) 씨는 평생 식당과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모은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천안시에 기부했다는 소식이다.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을 따라 피란 와 천안에 살면서 번 돈을 지역에 환원하고 싶다며 기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리온'의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들이 조의금 5000만 원을 해병대에 기부했다. 또한 2015년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크게 다쳐 3년간 투병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김범일 경감은 최근 명예 퇴임하면서 2000만 원을 공무 수행 도중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이러한 일상 속 기부를 통해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 그리고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재능을 기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발아(發芽) 단계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감동적인 기부 소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평생 근면과 절약, 정직, 봉사의 미덕을 실천해 온 세대가 솔선해서 보여주는 기부의 감동은 팍팍한 세상을 적셔주는 샘물이라 생각한다.

기부하는 사람은 누군가에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그들 덕분에 행복해 하고,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이웃에게 위안이 되어 주고 감사하며 귀한 사람으로서 잊혀지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꽃에는 향기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 인간의 향기는 곧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인간은 향기 없는 꽃과 같으며 허울일 뿐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인 세상은 독버섯만 자라고 있을 뿐이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된다.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고 웃음이 모여 기쁨이 된다.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고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진리를 알고 국민 모두가 함께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서 주기를 갈망해 본다.

'행복은 곱하고 불행은 나누며,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 가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부 문화에 동참하여 약한 자의 지팡이가 되고 사랑의 우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 행복의 꽃으로 활짝 핀 날이 온다면 우리 사회는 훈훈한 정이 넘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돈벌이 급급 광주과학관 과연 '국립' 맞나

국립광주과학관이 어린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른 과학 교육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입장료와 관람료에 주차료는 기본이고,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 내 매점과 커피숍마저 시중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학 인재 양성을 내걸고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도 유료인데, 최대 30만 원이 넘는다.

과학관 내 별빛누리관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은 4인 가족 기준 참가비만 19만 원이다.

이밖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 융합 탐구교실 등은 10주(30시간) 교육 과정에 30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또 특수영상관 5개를 운영 중인데 이중 네 개의 영상관은 1500~30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을 품은 스포츠, 스포츠는 즐거워' 특별전은 관람료만 7000원에 이른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싼 이용료 때문에 과학관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

결국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족이 과학관을 하루 방문했다고 가정할 경우 입장료 1만 원, 특수영상관 관람료 2만4000원, 특별전 관람료 2만8000원, 간식 및 커피 값 3만 원, 주차료 2000원 등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학부모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과학관은 매년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폭리 구조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립'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사실상 사립시설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돈 없는 시민은 자식 과학 교육도 못 시키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5·18 피해자 실태조사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실태 조사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내년에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5·18 민주 유공자 4412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후유증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실태 조사 대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유족 등 177명, 부상자 및 부상자 유족 2765명, 구금자 등 기타 피해자와 유족 1470명이었다.

5·18 피해자의 트라우마, 경제적 환경 등 생활 실태, 직업 보유 등 사회 적응 정도를 전수 조사해 국가 폭력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및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5·18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5·18 피해자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엊그제 발표한 5·18 40주년 사업 목록에서 피해자 실태 조사는 누락됐다.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주시는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5·18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5·18 학술대회에서는 5월 항쟁에 참가한 이후 고문 후유증 등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이 46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상당수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40년이 다 되도록 '국가 폭력'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국비가 반영된 5·18 40주년 기념사업은 전시회와 포럼 등 여덟 가지에 65억 원 규모로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5·18과 광주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당연하지만, 피해자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도 절실하다. 광주시는 정부와 적극 협의해 실태 조사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택의 기준

한 명과 두 명, 한 집안과 한 지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고사를 돌이켜 보면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흥미진진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먼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문고 갑을 쏘다'라는 설화. 신라의 제21대 왕인 비처왕이 천천정(天泉亭)에 이르렀을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기를 "이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다. 왕이 기병에게 명령하여 뒤따르게 했는데, 가는 길에 돼지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 문득 까마귀 간 곳을 잃어 버렸다.

기병이 길에서 배회하자 한 노인이 연못 속에서 나와 글을 바쳤는데 그 겉봉에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쓰여 있었다. 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뜯어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관은 "두 사람이란 일반 백성이요, 한 사람이란 왕을 말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겉봉을 뜯어보니 "거문고를 넣어 두는 상자를 쏴라(射琴匣)"라고 쓰여 있었다. 놀란 왕은 즉시 궁궐로 돌아와 거문고 갑(匣)을 쏘았다. 비명이 들려 살펴보니 그 속에는 간통을 저지른 승려와 비빈이 숨어 있었다.

중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북송 때의 대정치가인 범중엄은 각 지방의 장관 격인 감사(監司) 중 무능한 이들을 교체하기 위해 대상자를 가려내 그 이름 위에 붓으로 표시를 했다. 이에 수제자인 부필이 "어른께서야 한 번 붓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한 집안이 통곡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범중엄은 "한 집안이 통곡하는 것이 한 지방 전체가 통곡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라며 표시된 감사 모두를 교체했다.

비처왕은 한 명을 택하고 범중엄은 한 지방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선택의 기준은 "어느 쪽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이 더 큰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것이다. 지금 국내 정치권에 몰아치는 검경 갈등, 적폐 청산의 회오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